

이번주 시설공사 19억 발주

11월 셋째 주 도내에서 19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발주가 이뤄진다.

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시설공사 입찰내역은 △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테스트이벤트 오버레이 시설공사(8억7,100만원) △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의 홍천군 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(5억1,600만원) △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통신공사(4억7,000만원) 등이다. 총 발주금액은 18억5,700만원이다. 하위윤기자

횡성군 내년 예산안 3,381억 편성

【횡성】횡성군은 2017년도에 일반회계 3,032억원, 특별회계 349억원 등 총 3,381억원 규모의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다.

일반회계는 사상 처음으로 3,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당초예산 2,867억원보다 164억원(5.7%)이 늘어났으며 지방세 상승과 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.

군은 노인복지 증대, 농·축·산림 및 복지예산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,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·문화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

산을 편성했다.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의 20%인 574억원을 차지하며 농림축산 553억원(19%), 지역개발 306억원(10.6%)으로 편성했다.

또 일자리 창출 17억원, 횡성읍사무소 신축 60억원, 회다지소리 체험전수관 25억원,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건립 38억원, 섬강감성문화마을 조성 16억원 등이 투입된다.

이번 당초 예산안은 21일 개최되는 군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. 허남윤기자

강원도민일보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

**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
강원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
적정공사비 실현에
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!**



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
회장 오인철의 회원사 일문

